

파트너 감사시간과 파트너 수준의 핵심감사사항 유사도 Partner Audit Hour and Partner-Level Key Audit Matter Similarity

윤용석(주저자) · 김현아(교신저자)

Yongsuk Yun(First Author) · Hyun Ah Kim(Corresponding Author)

한남대학교 회계학과 조교수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Accounting, Hannam University(*hwantasi@hnu.kr*)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경영학부 부교수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Industrial Management,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 Education (*kukolo@koreatech.ac.kr*)

본 연구는 파트너 수준의 핵심감사사항(KAM) 유사도가 선행연구에서 정의된 것처럼 파트너 스타일의 개념에 부합하는지를 검증한다. 이를 위해 파트너 KAM 유사도와 파트너 감사시간 비중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전체 상장기업에 KAM이 적용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914기업-연도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파트너 감사시간 비중이 높을수록 KAM 유사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반면, 등록회계사, 스태프 및 품질관리 감사시간 비중과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KAM 유사도가 파트너의 실제 감사 참여도를 반영하는 유효한 파트너 스타일 변수임을 시사한다. 추가적으로, 파트너 및 회계법인 특성변수 통제 또는 피감사기업 고정효과 반영 후에도 본 연구결과는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본 연구는 새로운 파트너 변수인 KAM 유사도의 타당성을 입증함으로써 파트너 고정효과 연구를 확장하고, 파트너가 KAM 유사도를 높여 감사보고서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정보비대칭을 질적 측면에서 완화하려는 노력이 존재함을 실증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갖는다.

주제어: 감사파트너, 감사시간, 핵심감사사항, 유사도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partner-level Key Audit Matter (KAM) similarity reflects the concept of partner style, as defined in prior research. Specifically, we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KAM similarity and the proportion of audit hours attributed to the engagement partner. We analyze 3,914 firm-year observations from 2020 to 2022, a period during which KAM disclosure became mandatory for all listed firms. The results show that a higher proportion of partner audit hours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greater KAM similarity. In contrast, we find no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KAM similarity and the audit hours of other team members, such as registered accountants, staff, or quality control reviewers. This supports the interpretation of KAM similarity as a valid proxy for the engagement partner's actual audit involvement. Our findings remain robust after controlling for partner- and firm-level characteristics and applying firm fixed effect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validating KAM similarity as a novel partner-level variable. It also advances the understanding of partner fixed effects in audit research. Furthermore, we provide empirical evidence that engagement partners enhance audit report comparability by increasing KAM similarity, thereby helping to mitigate information asymmetry from a qualitative disclosure perspective.

Keyword: Audit Partner, Audit Hour, Key Audit Matter, Similarity

1. 서론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감사파트너 스타일의 지표로서 파트너 수준 핵심감사사항 유사도(Partner Key Audit Matter Similarity, PTRKAMSIM)의 타당성을 보완한다. 구체적으로 감사파트너의 감사시간 비중이 PTRKAMSIM과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한다.

초기 감사연구는 회계법인 간에는 감사품질 차이가 존재하지만, 같은 회계법인 내의 감사품질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한 감사오피스의 고유한 기술(skills)과 전문성(expertise)이 동일 회계법인 내 다른 오피스로 이전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후 연구에서는 감사오피스별 특성 차이가 존재함을 보이고 있다(DeFond and Zhang, 2014). 이러한 논의는 감사보고서에 업무수행이사 또는 파트너 성명이 공시됨에 따라 한 단계 더 발전하여 감사파트너의 감사과정 및 결과에 대한 영향을 연구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지지하는 증거가 제시되고 있다(Hanlon et al., 2022).

한편, 표준문구(boilerplate) 중심의 감사보고서가 유용성이 낮다는 비판에 대응하여 감독당국은 회계감사기준을 개정하여 새로운 감사보고서에 개별기업 관련 감사위험 정보인 핵심감사사항(KAM)을 추가하였다. KAM 보고와 관련하여 Rousseau and Zehms (2024)는 감사품을 표준화하려는 회계법인의 노력과 피감사기업 관련 지식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감사파트너의 상대적인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감사파트너의 영향이 더 크다는 실증 증거를 제시한 바 있다. 이 연구의 추가분석에서 저자들은 감사파트너의 KAM 보고 스타일을 파트너 수준의 KAM 유사도로 정의하고, 이를 통해 감사파트너가

품질을 신호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감사보수 및 감사품질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으나, 유의한 결과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해당 연구는 스타일(style)을 감사파트너가 여러 고객 및 연도에 걸쳐 텍스트적으로 유사한(textually similar) KAM을 보고하는 안정적인 패턴으로 정의하고 PTRKAMSIM을 파트너 수준에서 측정하지만, PTRKAMSIM이 감사파트너 스타일을 반영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감사파트너의 영향을 비교적 잘 반영할 것으로 기대되는 파트너 감사시간 비중과 PTRKAMSIM 간의 관련성을 통해 PTRKAMSIM의 타당성을 보완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감사파트너는 감사품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고(Cameran et al., 2022), 담당 파트너가 같은 피감사기업들의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은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비해 유의하게 높다(Chen et al., 2020; Jiu et al., 2020; Li et al., 2021; Frost et al., 2024, 안혜진 외 2017). 이와 같은 파트너 스타일이 KAM 보고에도 반영된다면, 기업 간 감사보고서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파트너의 노력은 파트너 감사시간 비중을 크게 하고 PTRKAMSIM을 증가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Chen et al.(2024)이 주장한 바와 같이 높은 KAM 유사도가 파트너의 표준문구 사용 빈도에 기인한다면 파트너 감사시간 비중과 PTRKAMSIM 간에 유의한 관련성은 관찰되지 않을 것이고, PTRKAMSIM을 파트너 스타일로 간주할 수 없다.

전체 상장회사에 대해 KAM이 적용되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파트너 감사시간 비중과 파트너 KAM 유사도 간에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등록회계사, 스태프 및 품질관리 감사시간 비중과 파트너 KAM

유사도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파트너 KAM 유사도가 파트너의 실제 감사 참여정도를 반영한다는 증거로 선행연구에서 파트너 스타일로서의 KAM 유사도에 타당성을 부여한다.

본 연구결과는 파트너 특성변수(파트너 담당 기업 수, 파트너 변경 등)와 회계법인 특성변수(소속 파트너 수)를 추가 통제하거나, 피감사기업의 고정효과를 적용한 경우에도 유지되었다. 추가적으로 기업규모에 따라 회계법인 및 파트너의 영향이 다를 가능성을 고려하여 중위수 기준 큰 기업과 작은 기업으로 그룹을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나, 유의도가 다소 낮아진 5% 유의수준에서 파트너 감사시간 비중과 KAM 유사도 간에 관련성이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 측면에서 공헌점이 존재한다. 첫째, 본 연구는 우리나라 상장기업 자료를 이용하여 파트너 KAM 유사도가 파트너 감사시간 비중과 관련이 있음을 보임으로써 파트너 스타일로서의 KAM 유사도에 타당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공헌점을 갖는다. 파트너 고정효과를 지지하는 증거가 제시되는 가운데, 인구학적 특성으로는 파트너 차이를 설명할 수 없어 새로운 요인에 대한 탐색이 요구되고 있다(Gul et al., 2013; Cameran et al., 2022). 본 연구는 새로운 파트너 변수인 KAM 유사도가 파트너의 실질 영향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짐을 보여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고 파트너 고정효과 관련 연구를 확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본 연구결과는 KAM 유사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는 점에서도 공헌점이 존재한다. 감사보고서는 표준문안(boilerplate)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KAM 유사도가 높은 경우를 회계법인 또는 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존도가 큰 것으로 해석한다(Chen et al., 2024). 본 연구는 파트너 수준의 KAM 유사도가 파트너 실질 노력의 결과임을 보임으로써 KAM 유사도를 해석함에 있어 어느 수준의 측정인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높은 KAM 유사도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이 아니므로 조심스러운 해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본 연구는 감사파트너가 감사보고서의 텍스트적인 측면에서도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임으로써 파트너의 주식시장에서의 긍정적인 역할에 대한 메커니즘을 설명한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선행연구에서 파트너 시간비중이 클수록 주식요구수익률이 낮음을 보이고 있으나 파트너의 관여가 어떻게 재무제표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설명이 다소 부족한 한계점이 존재한다(김정택&이상혁, 2022). 파트너가 같은 피감사기업들의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더불어 본 연구는 중요한 질적 정보인 KAM 보고와 관련하여 파트너가 유사도를 높인다는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파트너가 질적인 측면에서도 정보 비대칭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통해 주식시장에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Frost et al., 2024).

넷째, Rousseau and Zehms(2024)의 KAM 유사도는 중복 포함되는 기업들의 특성에 영향 받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¹⁾ 본 연구는 파트너가 연도별 1개의 상장기업을 감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KAM 유사도를 측정하였다. 수정된 측정치가 파트너 감사시

1) Rousseau and Zehms(2024)의 KAM 유사도는 연구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기업-동료 조합에 대한 KAM 유사도를 측정한 후 개별 감사인 별로 KAM 유사도의 평균을 측정하여 이용한다. 따라서 ㈜갑이 2020년과 2021년에 A회계법인 a파트너로부터 감사받은 경우 갑의 2020년과 2021년 KAM에 대한 유사도가 측정되므로 갑의 기업특성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배제하기 위해 본 연구는 파트너가 단일 상장기업만을 감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KAM 유사도를 측정하였다.

간 비중과 밀접하게 관련성을 갖는다는 본 연구결과는 Rousseau and Zehms(2024)가 파트너 KAM 유사도와 감사보수 및 감사품질 간에 유의한 관련성을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고려할 때 선행연구 측정방법이 개선될 필요성을 시사함과 동시에 KAM 유사도 측정을 다양한 측면에서 시도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한다.

본 연구는 다음의 구성으로 진행된다. 제2장에서는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가설을 도출하며, 제3장에서는 표본과 연구방법을 설명한다. 제4장에서는 가설검정 결과 및 추가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제5장에서는 연구를 맺으며 한계점을 서술한다.

II. 선행연구와 가설설정

2.1 감사파트너 관련 선행연구

상장회사 감사보고서에 업무수행이사 성명을 공개함에 따라 감사파트너가 감사과정과 감사품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상당수의 연구에서 감사파트너의 차별적인 영향이 존재함을 보고하고 있다(Lennox and Wu 2018; Hanlon et al., 2022). Taylor(2011)는 개별 감사인의 다른 특성들이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개별 감사인 행동 문헌(individual auditor behavioral literature)에 착안하여 감사보수 측면에서 개별 파트너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같은 회계법인 내에서도 개별 파트너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사보수 차이가 존재함을 보고한다. 국내 연구에서도 최승욱 외(2015)가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대해 감사파트너 고정효과(audit partner fixed effects)가 존재한다는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이를 지지한다. 이후 연구들은 피감사기업의 특성을 추가 통제함으로써 Taylor(2011)를 확장하는데, Gul et al.(2013)은 중국 기업의 감사품질에 대해 파트너 고정효과가 존재한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Cameran et al.(2022)은 영국 기업을 대상으로 회계법인, 감사오피스 및 감사파트너의 고정효과가 존재함을 보고하면서 파트너가 감사품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이 두 연구는 감사파트너의 고정효과가 파트너의 인구학적 특성(demographic characteristics)과 거의 관련 없음을 추가로 확인함으로써 파트너 차이를 나타내는 새로운 요인에 대한 탐색의 필요성을 제기한다.²⁾

감사파트너 관련 선행연구는 동일한 파트너에게 감사받은 기업들 간의 비교가능성이 높음을 주장한다. Chen et al.(2020)은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피감사기업들의 파트너가 같은 경우 회계법인이 다르거나, 동일 회계법인 내 파트너가 다른 경우에 비해 더욱 비교가능한 이익을 보고한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개별 파트너의 감사스타일은 회계법인의 규모가 클수록, 서명한 파트너가 직급이 높을수록 더 강하게 나타나, 파트너가 피감사기업의 이익 비교가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Jiu et al.(2020)도 중국기업을 이용하여 재무제표 비교가능성 개선과 관련한 회계법인과 개별 파트너의 역할을 분석하였으며, 회계법인 스타일을 통제한 후에 파트너를 공유한 기업들의 비교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함으

2) 파트너 특성이 감사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도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Hardies et al.(2021)은 벨기에의 여성 파트너는 남성 파트너에 비해 회계법인으로 부터의 보수는 적게 받지만 피감사기업의 감사보수는 더 높다는 증거를 통해 성별의 영향을 보였고, Knechel et al.(2015)는 공격적인(보수적인) 오류를 범한 파트너일수록 미래에도 동일한 오류의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로써 감사과정에서 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전문가적인 판단을 행사하는데 있어 개별 파트너 스타일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Li et al.(2021)은 파트너가 동일한 피감사기업들의 발생액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비교가능성이 높음을 보이고, 개별 파트너의 과거 비교가능성 스타일이 미래에도 지속된다는 증거를 통해 파트너 스타일의 지속성을 주장한다. 앞선 연구와 달리 Frost et al.(2024)은 업무수행이사 성명 공시가 비교적 늦게 도입된 미국 기업을 이용하여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에 대한 영향이 회계법인 및 감사 오피스에 비해 개별 파트너가 크를 보임으로써 규제 환경이 높은 환경에서도 파트너의 감사결과에 대한 영향이 특히 중요함을 강조한다.

2.2 핵심감사사항(KAM) 관련 선행연구

2017년 12월 회계감사기준 개정 시 도입된 KAM의 목적은 감사과정에서 감사인이 중요하게 다룬 이슈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감사보고서의 유용성을 증대시키는데 있다.³⁾ 그러나 KAM을 포함하는 새로운 감사보고서(expanded audit report)가 회계 정보의 가치관련성을 높이거나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다는 일관된 결과를 찾아보기 어렵다. 실험연구(experimental research)에서는 KAM이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증거가 제시되고 있지만(Sirois et al. 2018), 실증분석 측면에서 Gutierrez et al.(2018)은 영국 대규모 상장기업에 대해 확장된 감사보고서 도입이 투자자의 반응, 감사보수 및 감사품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밝혔다. Lennox et al.(2023)도 KAM을 통한 추가적인 위험 공시가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는 분석결과를 제시하면서, 투자자들이 관련 정보를 감사보고서 공시 이전에 이미 인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한다. 국내 연구에서도 KAM의 유용성과 관련하여 혼재된 결과가 제시되고 있는데, 신혜정&김수인(2019)은 수주산업이 KAM을 도입한 후에 미청구공사 잔액의 가치관련성이 향상되지 않음을 보이는 반면, 인창열&이명곤(2019)은 KAM 도입 후 감사시간이 증가하고 이익의 질이 감소했을 뿐 아니라 정보비대칭도 완화된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한편 최근 연구들은 KAM의 의사소통 가치(communicative value)를 텍스트적인 특성을 통해 분석한다. Zeng et al.(2021)은 2017년 중국의 KAM 자료를 이용하여 감사인이 산업 및 기업에 특정한 KAM을 보고하고 있으며, KAM 도입 후 감사 품질이 개선되었음을 보였을 뿐 아니라, 공시의 텍스트적인 특성(구체성, 유사도, 가독성 등)이 피감사기업의 이익의 질, 비적정 의견의 가능성과 관련 있음을 보여준다. Ong et al.(2022)은 KAM의 가독성이 높을수록 재무제표 이해도가 커짐을 보이고, 가독성 높은 KAM에 대해서만 정보의 정량화(quantification)가 투자자들의 이해에 도움이 됨을 확인함으로써 가독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Gambetta et al.(2023)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FTSE100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대리인 관점에서 감사인이 정보비대칭을 완화시켜 투자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가독성 측면에서 KAM의 정보적 가치를 분석한 결과 Big4 중 PwC와 EY의 가독성이 대체로 높고, 기업 수준(entity-level) KAM일수록 가독성이 낮다는 증거를 발견하였다. Seebeck(2024)은 시간 경과에 따라 KAM이 고착화되고(sticky), 표준화될(boilerplate)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2012년

3)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2017.12.20.) '핵심감사제 전면 도입 등을 위한 회계감사기준 개정'

부터 2018년까지 FTSE 350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시간이 흐름에 따라 텍스트적인 유사도가 증가함을 발견하여, 회계법인이 KAM과 관련하여 표준모델을 점진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이것이 KAM의 정보제공을 저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Seebeck(2024)는 KAM 유사도를 연도별, 연도-회계법인별, 연도-동일위험요소별로 측정하기 때문에 KAM 유사도가 높을수록 피감사기업 또는 감사팀 고유의 정보가 적어 정보 가치가 낮을 것으로 평가한다. 이와 달리 Rousseau and Zehms(2024)는 KAM 유사도를 회계법인과 감사파트너 수준에서 측정하고, 이를 피감사기업들과 기간에 걸쳐 텍스트적으로 유사한 KAM을 제공하는 회계법인과 파트너의 고유하고 안정적인 스타일로 정의한다. 해당 연구에서는 KAM 보고에서 회계법인과 파트너의 상대적인 영향을 분석하여 파트너를 공유한 피감사기업들의 KAM 유사도가 10% 높은 반면, 감사인이 동일한 피감사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비해 KAM이 2% 정도 높게 유사함을 발견하여 파트너 의사결정 스타일이 KAM 보고에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2.3 가설설정

Rousseau and Zehms(2024)는 파트너가 갈수록 KAM 유사도가 높아진다는 결과를 확장하여 KAM 보고가 파트너가 감사품질을 신호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지를 감사보수, 감사품질 및 투자자 의사결정과 관련성을 통해 검증하였다. 이 과정에서 저자들은 파트너 KAM 스타일을 각 파트너로부터 감사받은 기업-동료 조합(company-peer pairs)의 KAM 유사도 평균으로 측정하였으며, 분석결과 유

의한 관련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해당 연구의 각주 8에는 3개의 기업(A, B, C), 3명의 파트너(P1, P2, P3), 2개 연도(Y1, Y2)에 대해 (Y1, A, P1), (Y1, B, P1), (Y1, C, P2), (Y2, A, P1), (Y2, B, P2), (Y2, C, P3)의 감사 관측치를 제시하고, [(Y1, A, P1), (Y1, B, P1)] 및 [(Y1, A, P1), (Y2, A, P1)]은 다른 13개 조합⁴⁾에 비해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Y1, A, P1), (Y1, B, P1)]의 높은 유사도는 P1이 속한 회계법인의 영향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Y1, A, P1), (Y2, A, P1)]의 경우 피감사기업 A가 유사도를 높이는 원인일 수 있기 때문에 KAM 유사도가 파트너 스타일을 반영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파트너가 연도별 1개의 상장기업만을 감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PTRKAMSIM을 측정함으로써 피감사기업의 특성이 PTRKAMSIM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키고, 회계법인의 영향을 관련 특성변수를 통해 통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PTRKAMSIM가 실제로 파트너의 스타일을 반영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회계법인 파트너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높은 통찰력을 겸비했을 뿐 아니라, 감사설계, 실행 및 결과 검토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2014년 이후 감사인의 직급별 감사시간이 공식됨에 따라 감사의 최종책임자인 파트너의 감사시간이 궁극적으로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으며, 최승욱 외(2016)는 2014년 자료를 이용하여 파트너 투입시간과 감사품질 간에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제시하였지만, 파트너 감사시간을 비중으로 측정하는 경

4) 관측치 6개에서 2개를 순서 관계없이 선택하는 방법은 $(6 \times 5) / 2 = 15$ 개이고, 2개의 조합은 P1이 동일한 경우로 앞에 제시되어 있으므로 남은 조합은 13개가 된다.

우에는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김용수&전규안(2016)은 Big4의 파트너 기말감사시간은 재량적 발생액을 감소시키지만, non-Big4에 대해서는 유의하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김경태(2018)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상장기업들을 이용하여 최승욱외(2016)를 확장하는데, 파트너 감사시간이 많을수록 감사품질이 양호함을 보이고, 이러한 관계는 계속 감사시간 7~9년차에 집중되고, KOSDAQ 기업 및 non-Big4 감사인에 대해서 유지됨을 제시하였다. 김정택&이상혁(2022)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유가증권 상장기업 중 감사인이 Big4인 경우에 한해 파트너 감사시간 비중이 높을수록 자기자본비용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제시하여 파트너의 감사노력 투입이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보여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파트너의 실제 영향은 파트너 감사시간으로 측정됨을 보임과 동시에 감사과정에서 파트너의 관여가 많을수록 감사품질 및 자본시장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존재함을 나타낸다.

만약 PTRKAMSIM가 파트너 스타일을 반영한 것이라면, 파트너 감사시간 투입에 따라 KAM 유사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트너가 감사시간을 많이 투입할수록 감사절차 전반에 걸쳐 파트너의 통제력과 개입 수준이 높아져 파트너의 판단기준 및 위험평가 방식 등이 감사 전반에 투영되기 쉽다. 이러한 파트너 스타일은 여러 피감사기업들의 감사보고서에 유사한 방식의 판단과 표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KAM 항목의 선택과 감사절차의 유사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감사보고서의 일관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파트너라면 투입시간의 증가가 피감사기업들 간의 표현 방식의 유사성을 높임으로써 KAM 문단의 표준화 경향을 증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파트너는 회계법인 소속으로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PTRKAMSIM

이 회계법인의 영향에서 비롯된다면 파트너 감사시간과 관련이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상반된 영향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가설을 다음의 귀무가설 형태로 설정한다.

연구가설: 파트너 감사시간은 파트너 KAM 유사도와 관련이 없다.

III. 표본과 연구방법

3.1 표본

본 연구에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회계연도를 대상으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의 감사보고서를 수집하여 감사파트너 수준에서 KAM 유사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수집된 표본 중 금융업 기업, 적정 의견 이외의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 KAM이 포함되지 않거나 추출이 불가능한 기업을 제외하고, 5,964 기업-연도 표본에 대해 감사파트너 수준의 KAM 유사도를 측정하였다. 재무데이터는 VALUESearch를 통해 수집하였고, 파트너 감사시간과 직급별 감사시간은 감사보고서 내 외부 감사 실시내용 공시를 바탕으로 확보하였다. 파트너 감사시간 및 기업 관련 변수가 누락된 1,031개 기업-연도와 감사파트너가 단일 상장기업만을 감사하여 동일 기업에 대한 시계열적 유사도만 측정이 가능한 1,019개 기업-연도를 제외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3,914개 기업-연도 표본(2020년 1,226개, 2021년 1,289개, 2022년 1,399개)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3.2 감사파트너 수준의 KAM 유사도

KAM 유사도 측정은 선행연구에 따라 코사인 유사도로 산출하며, 이를 위해 감사보고서의 핵심감사사항을 추출한 후, 텍스트를 수치 행렬로 변환시켜야 한다(Cohen et al., 2020). 구체적으로 추출된 핵심감사사항을 한국어 자연어 처리 패키지인 KoNLPy의 Okt 행태소 분석기로 텍스트를 토큰화 한 후 TF-IDF 방식으로 텍스트를 벡터화하여 수치 행렬로 변환한다. 코사인 유사도는 두 벡터 간 내각의 코사인 값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문서 간 유사도가 높을수록 1에 가깝고, 낮을수록 0에 가까운 값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코사인 유사도는 유사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문서와 비교 문서를 1:1로 대응시켜 문서 간 유사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연구대상 기간 동안 파트너의 연도-피감사기업 표본이 3개 이상인 경우 KAM 유사도는 대상 연도-피감사기업과 비교 연도-피감사기업을 1:1로 매칭하여 각각의 유사도를 산출한 후 이를 평균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4개의 기업(A, B, C, D), 2명의 파트너(P1, P2), 2개 연도(Y1, Y1)에 대해 (Y1, A, P1), (Y1, B, P1),

(Y1, C, P1), (Y1, D, P2), (Y2, D, P2)의 감사관측치가 존재한다고 가정하자. Y1기간 파트너 P1의 A기업 KAM 유사도는 [(Y1, A, P1), (Y1, B, P1)]와 [(Y1, A, P1), (Y1, C, P1)]의 유사도 평균, 파트너 P1의 B기업 KAM 유사도는 [(Y1, B, P1), (Y1, A, P1)]와 [(Y1, B, P1), (Y1, C, P1)]의 유사도 평균, 파트너 P1의 C기업 KAM 유사도는[(Y1, C, P1), (Y1, A, P1)]와 [(Y1, C, P1), (Y1, B, P1)]의 유사도 평균으로 측정한다.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파트너가 동일하더라도 연도-피감사기업 표본 수가 3개 이상인 경우 유사도를 측정하는 연도-피감사기업에 대응되는 연도-피감사기업이 다르기 때문에 연도-피감사기업 별로 파트너 유사도는 다르게 측정된다. 본 연구는 대상기간(2020-2022년) 동안 파트너가 감사한 연도-피감사기업 집합을 기준으로 각 연도-피감사기업의 KAM 유사도를 측정하여 변수를 구성함으로써 파트너 수준의 시계열 및 횡단면 측면을 모두 반영하였다.

한편 파트너 P2의 경우 연도-피감사기업의 표본이 2개로 D기업 KAM 유사도는 Y1과 Y2가 동일하게 [(Y1, D, P2), (Y2, D, P2)]의 유사도로 측정된다.

P1의 연도-피감사기업 집합 = {(Y1, A), (Y1, B), (Y1, C)}		P2의 연도-피감사기업 집합 = {(Y1, D), (Y2, D)}	
구분	유사도 산출방법	구분	유사도 산출방법
(Y1, A)	[(Y1, A), (Y1, B)]의 유사도와 [(Y1, A), (Y1, C)]의 유사도의 평균	(Y1, D)	[(Y1, D), (Y2, D)]의 유사도
(Y1, B)	[(Y1, B), (Y1, A)]의 유사도와 [(Y1, B), (Y1, C)]의 유사도의 평균	(Y2, D)	
(Y1, C)	[(Y1, C), (Y1, A)]의 유사도와 [(Y1, C), (Y1, B)]의 유사도의 평균		

<그림 1> 파트너 유사도 산출방법

피감사기업의 특성은 KAM 항목 선정과 관련 절차를 결정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D기업의 Y1 과 Y2 KAM 유사도는 피감사기업의 영향이 상당하여 파트너 스타일로 해석하기 다소 어려운 면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피감사기업의 특성이 KAM 유사도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트너가 연도별로 1개 기업만을 감사한 경우를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파트너 KAM 유사도가 높게 측정된 기업을 살펴보면, 같은 기간 다른 피감사기업들에 대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KAM 항목을 선정하고, 비슷한 감사절차를 적용하였다. 예를 들어 2022년 4개의 기업을 감사한 non-Big4 파트너의 경우 3개의 핵심감사사항이 수익인식과 관련이 있고, 그 중 2개는 국외매출의 수익인식시기로 항목과 절차가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⁵⁾ 해당 파트너의 피감사기업 중 1개는 직전 2년 동안 같은 회계법인 소속의 다른 파트너로부터 감사를 받았는데, 파트너 교체와 함께 KAM도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 KAM 선정에 있어 피감사기업의 특성뿐 아니라 파트너의 영향도 중요하게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다.

3.3 연구모형

본 연구는 파트너 감사시간 비중과 파트너 KAM 유사도 간의 관련성을 검증하고자 하며, 가설검정을 위해 연구모형을 다음의 식 (1)과 같이 설정하였다.

$$PTRSIM = \beta_0 + \beta_1 PTRHRR(CPAHRR, STAFHRR, QUALHRR) + \lambda'Controls + Y + ID + \varepsilon \quad (1)$$

- PTRSIM* : 파트너 KAM 유사도;
- PTRHRR* : 파트너 시간 비중(파트너 감사시간/총감사시간);
- CPAHRR* : 등록회계사 시간 비중(등록회계사 감사시간/총감사시간);
- STAFHRR* : 스태프 시간 비중(스태프 감사시간/총감사시간);
- QUALHRR* : 품질관리 시간 비중(품질관리 감사시간/총감사시간);
- Controls* : 아래의 통제변수들;
- SIZE* : 총자산의 자연로그;
- LEV* : 기말총부채/기말총자산;
- ROA* : 당기순이익/평균총자산;
- CURR* : 기말유동자산/기말유동부채;
- INVREC* : (매출채권+재고자산)/기말총자산;
- GRW* : 매출액증가율;
- CFO* : 영업현금흐름/기말총자산;
- LOSS* : 당기순손실인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
- ACC* : 발생액/기말총자산, 발생액은 당기순이익-영업 현금흐름;
- FOR* : 외국인 지분율;
- LNAGE* : 기업연수의 자연로그(2023년 - 상장연도);
- BIG4* : 감사인이 삼일, 삼정, 안진, 한영 인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
- SPEC* : 산업전문감사인, 연도별 중분류 산업 내 피감사기업의 매출액 기준 1위 회계법인으로서 2위와의 시장점유율 차이가 10% 이상 나는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
- FIRST* : 감사인이 변경된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
- KS*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인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
- Y* : 연도 더미;
- ID* : 중분류 기준 산업 더미;
- ε : 잔차항.

종속변수 *PTRSIM*은 감사파트너 수준 KAM 유사도를 나타내며, 문서 간 유사도가 높을수록 1에, 낮을

5) 부록 참고

수록 0에 가까운 값을 보인다. 피감사기업의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다음의 기업특성 변수들(*Controls*)을 포함하였다(윤용석과 김현아 2024b): 기업규모(*SIZE*), 부채비율(*LEV*), 총자산수익률(*ROA*), 유동자산비율(*CURR*), 매출채권과 재고자산 비율(*INVREC*), 매출액증가율(*GRW*), 영업현금흐름 비율(*CFO*), 당기순손실 더미(*LOSS*), 발생액 비율(*ACC*), 외국인지분율(*FOR*), 상장연수(*LNAGE*). 또한 회계법인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대형회계법인 더미(*BIG4*), 산업전문감사인 더미(*SPEC*), 감사인 변경 더미(*FIRST*), 유가증권시장 더미(*KS*)를 포함하였다. 연도고정효과(*Y*)와 산업고정효과(*ID*,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도 모형에 포함되었다. 분석의 정확성을 위해 모든 연속변수는 연도별로 1-99 퍼센타일에서 윈저화하였으며, 기업별 클러스터링된 표준오차를 사용하여 *t*값을 산출하였다.

IV. 실증분석 결과

4.1 기술통계량과 상관계수

본 연구에서 이용한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은 <표 1>

<표 1> 기술통계량(N=3,914)

	mean	sd	p25	p50	p75
<i>PTRSIM</i>	0.270	0.178	0.155	0.211	0.310
<i>PTRHRR</i>	0.140	0.103	0.050	0.108	0.210
<i>CPAHR</i>	0.680	0.140	0.582	0.688	0.785
<i>STAFHRR</i>	0.123	0.135	0.000	0.078	0.230
<i>QUALHRR</i>	0.019	0.009	0.012	0.017	0.023
<i>SIZE</i>	26.085	1.293	25.178	25.853	26.735
<i>LEV</i>	0.372	0.193	0.211	0.367	0.506
<i>ROA</i>	0.007	0.114	-0.022	0.025	0.063
<i>CURR</i>	2.895	3.36	1.072	1.721	3.204
<i>INVREC</i>	0.218	0.140	0.109	0.197	0.305
<i>GRW</i>	0.138	0.449	-0.062	0.080	0.233
<i>CFO</i>	0.032	0.089	-0.013	0.036	0.085
<i>LOSS</i>	0.324	0.468	0.000	0.000	1.000
<i>ACC</i>	-0.030	0.149	-0.067	-0.021	0.022
<i>FOR</i>	0.059	0.091	0.010	0.023	0.064
<i>LNAGE</i>	2.658	0.774	2.079	2.833	3.178
<i>BIG4</i>	0.342	0.474	0.000	0.000	1.000
<i>SPEC</i>	0.088	0.284	0.000	0.000	0.000
<i>FIRST</i>	0.297	0.457	0.000	0.000	1.000
<i>KS</i>	0.331	0.471	0.000	0.000	1

1) 변수정의는 <식 1>을 참조.

에 제시되어 있다. KAM 파트너 유사도(*PTRSIM*)의 평균(중위수)은 0.270(0.211)로 코사인 유사도가 1에 가까울수록 완전한 일치함을 의미하므로 파트너의 KAM 표준문안 사용 정도가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선행연구인 Rousseau and Zehms(2024)의 KAM 유사도의 평균(중위수)이 0.25(0.23)임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KAM 유사도는 영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파트너 감사시간 비중(*PTRHRR*)의 평균(중위수)은 0.140(0.108)로 총 감사시간의 약 10~14% 가량 파트너가 관여하는 것으로 보이나, 25%와 75%가 각각 0.050과 0.210임을 고려할 때 피감사기업에 따라 파트너 투입시간 비중이 차이가 적지 않다. 총 감사시간에서 등록회계사의 투입 비중의 평균이 0.688로 가장 크고, 스태프와 품질관리가 각각 0.078과 0.017로 뒤따르고 있다. 표본에 포함된 기업 중 34.2%는 Big4로부터 감사 받았으며, 초도감사(*FIRST*)의 비중은 29.7%이다.

〈표 2〉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KAM 파트너 유사도(*PTRSIM*)는 파트너 감사시간 비중(*PTRHRR*)과 양(+)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산업전문감사인 더미변수(*SPEC*)와 음(-)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다른 직급의 감사시간 비중들과는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파트너 감사시간 비중(*PTRHRR*)은 다른 직급의 감사시간 비중들과는 주로 음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고, 특히 스태프 감사시간 비중(*STAFHRR*)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상위직급과 하위직급 간 감사 투입시간의 특징을 나타낸다.

4.2 파트너 감사시간 비중과 핵심감사사항(KAM) 유사도

〈표 3〉의 열(1)은 파트너 감사시간 비중과 KAM 유사도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파트너 감사시간 비중(*PTRHRR*)에 대한 계수 값이 0.178(*t*-값: 3.857)로 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파트너의 노력이 많이 투입될수록 혹은 파트너가 감사에 많이 관여할수록 KAM의 유사도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파트너의 KAM 유사도인 *PTRSIM*이 파트너의 영향을 반영함을 의미하며 선행연구에서 *PTRSIM*을 파트너 스타일로 정의하는데 타당성을 부여한다.

감사팀의 다른 구성원인 등록회계사, 스태프 및 품질관리 인력의 감사시간 투입비중이 *PTRSIM*에 유사하게 영향을 미친다면, *PTRSIM*을 파트너의 실질 영향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등록회계사, 스태프, 품질관리 인력의 감사시간 투입비중과 *PTRSIM* 간의 관련성을 추가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열(2)~열(4)에 제시하였다. 열(1)의 결과와 달리 열(2)~(4)에서는 유의한 결과가 발견되지 않아 *PTRSIM*이 실질적으로 파트너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피감사기업의 특성(*SIZE*, *LEV*, *ROA* 등)은 대체로 *PTRSIM*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손실기업(*LOSS*)과 초도감사(*FIRST*)에 대해서 10%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난다. 이는 *LOSS*와 관련한 감사인의 공통적인 KAM 내용의 존재를 의미하며, *FIRST*의 결과는 감사인 변경 첫째에 파트너 스타일이 강하게 반영되는 것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초도감사에 대한 회계법인의 공통 KAM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회계법인이 산업전문감사인(*SPEC*)인 경우 *PTRSIM*과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보이는데 회계법인이 전문성을 갖춘

〈표 2〉 상관관계

	<i>PTRSIM</i>	1.	2.	3.	4.	5.	6.	7.	8.
1. <i>PTRHRR</i>	0.07								
2. <i>CPAHR</i>	0.00	-0.07							
3. <i>STAFHRR</i>	-0.02	-0.51	-0.76						
4. <i>QUALHRR</i>	-0.02	-0.05	-0.17	0.11					
5. <i>SIZE</i>	-0.01	-0.35	-0.20	0.28	-0.21				
6. <i>LEV</i>	0.00	-0.07	-0.02	0.04	-0.06	0.19			
7. <i>ROA</i>	0.01	-0.08	-0.10	0.12	-0.04	0.26	-0.27		
8. <i>CURR</i>	0.00	0.09	0.03	-0.05	0.07	-0.21	-0.59	0.08	
9. <i>INVREC</i>	-0.03	-0.02	0.01	0.01	-0.01	-0.06	0.19	0.12	-0.15
10. <i>GRW</i>	-0.01	0.00	0.00	0.00	0.01	0.01	0.02	0.11	-0.01
11. <i>CFO</i>	0.02	-0.08	-0.07	0.08	-0.04	0.22	-0.14	0.52	0.00
12. <i>LOSS</i>	0.02	0.11	0.09	-0.12	0.03	-0.26	0.23	-0.71	-0.05
13. <i>ACC</i>	0.00	-0.03	-0.04	0.05	-0.03	0.10	-0.13	0.55	0.07
14. <i>FOR</i>	-0.03	-0.19	-0.14	0.18	-0.07	0.46	-0.06	0.18	-0.02
15. <i>LNAGE</i>	-0.02	-0.10	-0.04	0.08	-0.13	0.27	0.04	0.05	-0.14
16. <i>BIG4</i>	-0.01	-0.64	-0.50	0.73	0.19	0.42	0.06	0.11	-0.09
17. <i>SPEC</i>	-0.06	-0.27	-0.24	0.29	0.06	0.35	0.08	0.06	-0.06
18. <i>FIRST</i>	0.03	0.05	0.03	-0.04	0.00	-0.14	-0.01	-0.11	0.02
19. <i>KS</i>	0.00	-0.23	-0.17	0.21	-0.13	0.57	0.15	0.09	-0.15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0. <i>GRW</i>	0.05									
11. <i>CFO</i>	-0.05	0.01								
12. <i>LOSS</i>	-0.10	-0.09	-0.42							
13. <i>ACC</i>	0.13	0.10	-0.18	-0.33						
14. <i>FOR</i>	-0.06	0.01	0.20	-0.17	0.02					
15. <i>LNAGE</i>	0.02	-0.10	0.03	-0.06	0.04	0.14				
16. <i>BIG4</i>	-0.01	0.01	0.11	-0.13	0.04	0.27	0.08			
17. <i>SPEC</i>	-0.02	-0.01	0.07	-0.08	0.01	0.19	0.06	0.41		
18. <i>FIRST</i>	-0.03	-0.05	-0.06	0.11	-0.05	-0.05	0.03	-0.09	-0.06	
19. <i>KS</i>	0.05	-0.04	0.06	-0.11	0.04	0.24	0.37	0.31	0.25	-0.09

1) 변수정의는 <식 1>을 참조.

2) 굵은 글씨는 1%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표 3〉 파트너 감사시간 비중과 KAM 유사도

	종속변수 = PTRSIM			
	(1)	(2)	(3)	(4)
<i>PTRHRR</i>	0.178*** (3.857)			
<i>CPAHRR</i>		-0.011 (-0.386)		
<i>STAFHRR</i>			-0.049 (-1.318)	
<i>QUALHRR</i>				-0.435 (-1.168)
<i>SIZE</i>	0.002 (0.608)	0.001 (0.185)	0.000 (0.121)	-0.000 (-0.085)
<i>LEV</i>	0.016 (0.612)	0.016 (0.579)	0.016 (0.603)	0.016 (0.594)
<i>ROA</i>	0.049 (0.963)	0.056 (1.105)	0.059 (1.174)	0.059 (1.164)
<i>CURR</i>	-0.000 (-0.021)	-0.000 (-0.024)	0.000 (0.020)	-0.000 (-0.001)
<i>INVREC</i>	-0.055* (-1.911)	-0.063** (-2.167)	-0.061** (-2.122)	-0.063** (-2.199)
<i>GRW</i>	-0.005 (-0.865)	-0.005 (-0.805)	-0.005 (-0.829)	-0.005 (-0.824)
<i>CFO</i>	0.063 (1.419)	0.062 (1.396)	0.060 (1.361)	0.060 (1.365)
<i>LOSS</i>	0.017* (1.732)	0.018* (1.826)	0.018* (1.820)	0.018* (1.819)
<i>ACC</i>	0.009 (0.418)	0.007 (0.331)	0.008 (0.332)	0.006 (0.282)
<i>FOR</i>	-0.046 (-1.104)	-0.043 (-1.025)	-0.044 (-1.036)	-0.044 (-1.043)
<i>LNAGE</i>	-0.007 (-1.275)	-0.007 (-1.367)	-0.007 (-1.327)	-0.008 (-1.412)
<i>BIG4</i>	0.030*** (2.914)	0.005 (0.500)	0.017 (1.369)	0.010 (0.979)
<i>SPEC</i>	-0.045*** (-3.526)	-0.045*** (-3.523)	-0.044*** (-3.495)	-0.043*** (-3.424)
<i>FIRST</i>	0.012* (1.914)	0.011* (1.768)	0.012* (1.835)	0.011* (1.779)
<i>KS</i>	0.008 (0.691)	0.008 (0.772)	0.009 (0.778)	0.008 (0.760)
<i>Constant</i>	0.188* (1.763)	0.276*** (2.602)	0.276*** (2.645)	0.305*** (2.851)
Year fixed effects	Yes	Yes	Yes	Yes
Industry fixed effects	Yes	Yes	Yes	Yes
N	3,914	3,914	3,914	3,914
Adj. R2	0.028	0.021	0.022	0.022

1)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2) 변수정의는 <식 1>을 참조.

분야에서 품질의 표준화를 피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회계법인의 강력한 영향이 KAM 보고와 관련한 파트너 스타일을 낮추는 것으로 해석된다.⁶⁾

4.3 추기분석

4.3.1 파트너 수준의 피감사기업 특성 통제

파트너가 감사하는 피감사기업들의 다양한 특성이 파트너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파트너 수준의 KAM 유사도는 파트너가 담당하는 피감사기업들의 특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의 강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피감사기업들의 특성이 통제된 경우에도 주된 결과가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연구모형에 기업 특성변수를 파트너가 감사한 전체 피감사기업에 대한 평균치(예를 들어 *PTR_SIZE*의 경우 한 파트너가 감사한 전체 피감사기업의 총자산 자연로그의 평균값)로 사용하여 분석을 재실시하였으며,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PTRSIM*의 유의한 결과는 유지되어 연구결과가 강건함을 보여준다.

4.3.2 파트너 및 회계법인 특성 추가 통제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감사기업의 특성은 *PTRSIM*와 유의한 관련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파트너 및 회계법인 특성변수를 추가한 후에도 연구결과가 유지되는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윤용석&김현아(2024a)를 참고하여 파트너 특성변

수로 해당연도 파트너 담당기업 수(*PTR_FNUM*), 동일 산업 내 파트너 복수기업 담당 여부(*PTR_IND*), 파트너 변경 여부(*PTR_CHG*), 파트너 재직경력(*PTR_EXP*), 파트너 지분율(*PTR_SHR*)을 포함하였으며, 회계법인 고정변수로 회계법인의 파트너 수(*AUD_PTRN*)를 추가한 후 분석을 재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⁷⁾

<표 5>의 열(1)의 *PTRHRR*에 대한 계수 값이 0.127(t값 2.659)로 여전히 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어 본 연구결과가 강건함을 확인할 수 있다. 파트너 특성 변수에 대해서는 파트너가 담당하는 기업 수(*PTR_FNUM*)가 많을수록 KAM 유사도가 낮아지고, 파트너가 산업 내 복수 기업을 담당(*PTR_IND*)할수록 KAM 유사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파트너가 바쁠수록 스타일을 고수하기 어려움을 나타내며 피감사기업이 동종 산업에 속한 경우 산업의 영향으로 *PTRSIM*이 증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파트너가 변경(*PTR_CHG*)되거나 근속연수(*PTR_EXP*)가 길수록 KAM 유사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회계법인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파트너 스타일이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회계법인 고정효과로 포함시킨 회계법인의 파트너 수(*AUD_PTRN*)와 *PTRSIM* 간에 유의한 양(+)의 관계가 관찰되어 감독기관 및 정보이용자들의 우려대로 KAM 보고와 관련하여 회계법인의 표준화 영향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6) 감사인의 규모(*BIG4*)는 감사위험이나 감사품질 등과 상관관계가 있어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산팽창계수(VIF)를 확인한 결과 *BIG4* 변수의 VIF는 3.02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우려는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 *BIG4* 변수를 제외하고 분석을 시행하여도 결과는 동일하다.

7) 기존 통제변수에 회계법인 관련 특성변수인 Big4 여부(*BIG4*), 산업전문감사인 여부(*SPEC*), 초도감사(*FIRST*)가 포함되어 있다.

〈표 4〉 파트너 수준의 피감사기업 특성 통제 후 파트너 감사시간 비중과 KAM 유사도

	종속변수 = PTRSIM			
	(1)	(2)	(3)	(4)
<i>PTRHRR</i>	0.172*** (3.723)			
<i>CPAHRR</i>		-0.011 (-0.412)		
<i>STAFHRR</i>			-0.047 (-1.295)	
<i>QUALHRR</i>				-0.371 (-1.024)
<i>PTR_SIZE</i>	0.004 (0.711)	0.002 (0.364)	0.002 (0.340)	0.002 (0.246)
<i>PTR_LEV</i>	0.020 (0.496)	0.021 (0.530)	0.022 (0.559)	0.021 (0.528)
<i>PTR_ROA</i>	-0.282** (-2.230)	-0.276** (-2.163)	-0.270** (-2.115)	-0.274** (-2.150)
<i>PTR_CURR</i>	-0.001 (-0.897)	-0.001 (-0.904)	-0.001 (-0.918)	-0.001 (-0.903)
<i>PTR_INVREC</i>	-0.161*** (-3.641)	-0.173*** (-3.891)	-0.171*** (-3.832)	-0.173*** (-3.891)
<i>PTR_GRW</i>	-0.013** (-2.371)	-0.013** (-2.451)	-0.013** (-2.512)	-0.013** (-2.500)
<i>PTR_CFO</i>	0.485*** (4.197)	0.491*** (4.192)	0.485*** (4.137)	0.490*** (4.189)
<i>PTR_LOSS</i>	0.015 (0.955)	0.017 (1.087)	0.016 (1.036)	0.017 (1.078)
<i>PTR_ACC</i>	0.376*** (3.177)	0.376*** (3.134)	0.371*** (3.102)	0.374*** (3.124)
<i>PTR_FOR</i>	-0.195*** (-2.735)	-0.187*** (-2.617)	-0.188*** (-2.630)	-0.187*** (-2.630)
<i>PTR_LNAGE</i>	-0.021** (-2.525)	-0.021** (-2.539)	-0.021** (-2.472)	-0.021** (-2.568)
<i>PTR_BIG4</i>	0.039*** (3.241)	0.015 (1.236)	0.027* (1.913)	0.019 (1.638)
<i>PTR_SPEC</i>	-0.066*** (-3.003)	-0.067*** (-3.027)	-0.066*** (-3.026)	-0.065*** (-2.952)
<i>PTR_FIRST</i>	0.034*** (3.045)	0.033*** (2.898)	0.034*** (3.011)	0.033*** (2.908)
<i>PTR_KS</i>	0.012 (0.743)	0.013 (0.791)	0.013 (0.787)	0.013 (0.776)
<i>Constant</i>	0.201 (1.233)	0.299* (1.820)	0.295* (1.815)	0.318** (1.982)
Year fixed effects	Yes	Yes	Yes	Yes
Industry fixed effects	Yes	Yes	Yes	Yes
N	3,914	3,914	3,914	3,914
Adj. R2	0.040	0.034	0.035	0.034

1)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2) 변수정의는 <식 1>을 참조, <표 4>의 통제변수들(PTR_Controls)은 파트너가 감사한 모든 피감사기업 기준 각 변수들의 평균값임.

〈표 5〉 파트너 특성 통제 후 파트너 감사시간 비중과 KAM 유사도

	종속변수 = PTRSIM			
	(1)	(2)	(3)	(4)
<i>PTRHRR</i>	0.127*** (2.659)			
<i>CPAHR</i>		-0.001 (-0.020)		
<i>STAFHRR</i>			-0.030 (-0.798)	
<i>QUALHRR</i>				-0.221 (-0.578)
<i>PTR_FNUM</i>	-0.012*** (-5.079)	-0.014*** (-5.859)	-0.014*** (-5.815)	-0.014*** (-5.846)
<i>PTR_IND</i>	0.033*** (2.845)	0.033*** (2.838)	0.033*** (2.828)	0.033*** (2.837)
<i>PTR_CHG</i>	-0.031*** (-4.950)	-0.032*** (-4.987)	-0.032*** (-4.992)	-0.032*** (-4.989)
<i>PTR_EXP</i>	-0.017*** (-2.895)	-0.018*** (-2.996)	-0.018*** (-3.040)	-0.018*** (-3.036)
<i>PTR_SHR</i>	-0.001 (-0.528)	-0.001 (-1.117)	-0.001 (-1.164)	-0.001 (-1.144)
<i>AUD_PTRN</i>	0.023** (2.348)	0.021** (2.033)	0.020** (2.023)	0.020** (2.024)
Controls	Yes	Yes	Yes	Yes
Year fixed effects	Yes	Yes	Yes	Yes
Industry fixed effects	Yes	Yes	Yes	Yes
N	3,851	3,851	3,851	3,851
Adj. R2	0.048	0.045	0.045	0.045

1)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2) 파트너 담당기업 수(*PTR_FNUM*), 동일 산업 내 파트너 복수기업 담당 여부(*PTR_IND*), 파트너 변경 여부(*PTR_CHG*), 파트너 재직경력(*PTR_EXP*), 파트너 지분율(*PTR_SHR*), 그 외 변수정의는 〈식 1〉을 참조.

4.3.3 고정효과 모형

본 연구결과의 강건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감사기업의 고정효과를 통제하고 분석을 재 실시하였으며, 〈표 6〉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유의수준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유의한 관련성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4.3.4 기업규모를 고려한 분석

피감사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영업활동이 복잡하기 때문에 KAM 기재 개수가 많고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수준도 강하기 때문에 *PTRSIM*에 미치는 파트너의 영향도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⁸⁾ 이를 확인하기 위해 기업규모 중위수를 기준으로 작은

8)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1.12.1.) '2020년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기재실태 분석 및 시사점'에 따르면 2020년 감사보고서의 KAM 개수가 자산규모가 1천억원 미만인 경우 0.97개인 반면, 2조원 이상인 경우 1.46개로 나타난다.

〈표 6〉 고정효과 적용 후 파트너 감사시간 비중과 KAM 유사도

	종속변수 = PTRSIM			
	(1)	(2)	(3)	(4)
<i>PTRHRR</i>	0.106** (2.094)			
<i>CPAHRR</i>		0.043 (1.507)		
<i>STAFHRR</i>			-0.114*** (-3.140)	
<i>QUALHRR</i>				-0.212 (-0.582)
Controls	Yes	Yes	Yes	Yes
Year fixed effects	Yes	Yes	Yes	Yes
Firm fixed effects	Yes	Yes	Yes	Yes
N	3,914	3,914	3,914	3,914
Adj. R2	0.575	0.574	0.576	0.574

1)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2) 변수정의는 〈식 1〉을 참조.

기업과 큰 기업으로 그룹을 분류하여 분석을 재 실시하였으며, 〈표 7〉의 열(1)과 열(5)에서 모두 *PTRHRR*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 계수 값을 보이고 있어 기업규모에 따라 본 연구결과가 영향 받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⁹⁾

4.3.5 감사보고서 유사도에 대한 파트너의 영향

감사보고서는 회계감사기준에서 제공하는 표준문안과 회계법인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피감사기업에 대한 개별적인 정보가 부족하다는 비난이 지속되어 왔다. KAM 도입과 감사보고서 내용 확대를 통해 감사보고서의 유용성을 제고하려

는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본 연구의 *PTRHRR*과 *PTRSIM*의 유의한 관련성은 파트너가 KAM 보고에 직접 개입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파트너의 영향이 감사보고서(감사의견부터 업무담당이사 이름에 해당하는 부분)에도 존재하는지를 추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PTRHRR*과 파트너 수준의 감사보고서 유사도(*PTRSIM_ALL*)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표 8〉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파트너의 노력은 감사보고서 유사도(*PTRSIM_ALL*)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KAM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계법인과 회계감사기준 사례에 기반하여 작성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9) 별도의 표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기업규모를 5천억 원을 기준으로 구분한 분석에서는 5천억 원 미만의 기업에 대해서는 유의한 관련성이 유지되었으나, 5천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 5천억 원을 초과하는 상장기업 수가 많지 않은 가운데 이들 기업의 회계법인에 대한 경제적 기여도가 크고, 회계 관련 이슈 발생 시 회계법인 명성에 중요한 훼손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에 대한 회계법인 차원의 면밀한 점검이 *PTRSIM*에 대한 파트너의 영향을 낮춘 것으로 추정된다.

〈표 7〉 기업규모를 고려한 분석

	종속변수 = PTRSIM							
	작은 기업				큰 기업			
	(1)	(2)	(3)	(4)	(5)	(6)	(7)	(8)
<i>PTRHRR</i>	0.150** (2.540)				0.185** (2.550)			
<i>CPAHRR</i>		-0.017 (-0.470)				0.026 (0.568)		
<i>STAFHRR</i>			-0.070 (-1.475)				-0.044 (-0.765)	
<i>QUALHRR</i>				0.416 (0.879)				-1.672*** (-2.852)
<i>Controls</i>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i>Year fe</i>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i>Industry fe</i>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i>N</i>	1,957	1,957	1,957	1,957	1,957	1,957	1,957	1,957
<i>Adj. R2</i>	0.033	0.028	0.029	0.028	0.045	0.041	0.041	0.045

1)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2) 변수정의는 〈식 1〉을 참조.

〈표 8〉 감사보고서 유사도에 대한 파트너의 영향

	종속변수 = PTRSIM_ALL			
	(1)	(2)	(3)	(4)
<i>PTRHRR</i>		-0.016 (-0.658)		
<i>CPAHRR</i>			0.017 (1.244)	
<i>STAFHRR</i>				-0.001 (-0.040)
<i>QUALHRR</i>				-0.197 (-0.985)
<i>Controls</i>		Yes	Yes	Yes
<i>Year fixed effects</i>		Yes	Yes	Yes
<i>Industry fixed effects</i>		Yes	Yes	Yes
<i>N</i>		3,914	3,914	3,914
<i>Adj. R2</i>		0.084	0.085	0.085

1)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2) 변수정의는 〈식 1〉을 참조.

V. 결론

본 연구는 파트너 스타일로서 파트너 수준의 KAM 유사도가 타당한지를 파트너 감사시간 비중과의 관련성을 통해 검증한다.

전체 상장회사에 KAM이 도입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914기업-연도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총 감사시간 중 파트너 비중이 클수록 파트너 수준의 KAM 유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등록 회계사, 스태프 및 품질관리 감사시간 비중에 대해서는 관찰되지 않아 파트너 KAM 유사도가 실질적으로 파트너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선행연구의 파트너 스타일로서 KAM 유사도의 타당성을 지지하는 증거로 파트너 고정효과와 관련한 새로운 요인으로서 관련 연구를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보완하고 KAM 유사도의 의미에 새로운 관점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공헌점을 갖지만 다음의 한계점도 존재한다. KAM은 산업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선행연구에서는 KAM 유사도를 동일 산업에 속하는 기업-동료 조합을 대상으로 측정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별 파트너가 동종 산업의 복수 기업을 감사하는 경우가 약 16%로 적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표본규모가 대폭 감소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본 연구의 KAM 유사도는 연구기간 동안 파트너가 담당한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측정하였으며, 따라서 유사도 측정 범위를 달리하는 경우 연구결과가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특성은 본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어렵게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주식시장 규모가 크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KAM 측정방법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참고문헌

- 김경태(2018), "파트너 감사시간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계속감사시간을 중심으로,"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제60권 4호, pp.379-409.
- (Kim, K. T.(2018), "The Association between Partner Hours and Audit Quality," *Study on Accounting, Taxation & Auditing*, 60(4), pp.379-409.)
- 김용수, 전규안(2016), "직급별 감사시간이 감사품질 및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연구**, 제45권 4호, pp.1339-1375.
- (Kim, Y. and K. Jeon(2016), "The Effects of the Position-specific Audit Hours on Audit Quality and Audit Fees," *Korean Management Review*, 45(4), pp.1339-1375.)
- 김정택, 이상혁(2022), "파트너 감사시간과 자기자본비용의 관련성," **회계와 정책연구**, 제24권 4호, pp.1-28.
- (Kim, J. and S. Lee(2022),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ner Audit Hours and Cost of Equity," *Review of Accounting and Policy Studies*, 27(4), pp.1-28.)
- 신혜정, 김수인(2019), "핵심감사제도 도입이 미청구공사잔액의 가치관련성에 미치는 영향," **회계저널**, 제28권 2호, pp.149-171.
- (Shin, H. and S. Kim(2019), "The Impact of Adopting Key Audit Matters on Value Relevance of Unbilled Revenue Account," *Korean Accounting Journal*, 28(2), pp.149-171.)
- 안혜진, 최종학, 정문기(2017), "감사파트너가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연구**, 제46권 1호, pp.235-265.
- (Ahn, H., J. Choi, and M. K. Chung(2017), "The Effect of Audit Partner on Accounting Comparability," *Korean Management Review*, 46(1), pp.235-265.)
- 윤용석, 김현아(2024), "감사파트너 수준 핵심감사사항 유

- 사도 결정요인,” *국제회계연구*, 제117집, pp.115-133.
- (Yun, Y. and H. A. Kim(2024), “Determinants of KAM Similarity at the Audit Partner Level,” *Korea International Accounting Review*, 117, pp.115-133.)
- 윤용석, 김현아(2024),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중요성 인식과 핵심감사사항 가독성,” *경영학연구*, 제53권 6호, pp.1375-1397.
- (Yun, Y. and H. A. Kim(2024), “Auditor’s Importance of Quality Control and Key Audit Matters Readability,” *Korean Management Review*, 53(6), pp.1375-1397.)
- 인창열, 이명곤(2019), “핵심감사제의 도입효과에 관한 연구,”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제61권 3호, pp.101-146.
- (In, C. and M. Lee(2019), “A Study on the Effect of Key Audit Matters,” *Study on Accounting, Taxation & Auditing*, 61(3), pp.101-146.)
- 최승욱, 노준화, 이재은, 배길수(2016), “파트너 투입시간과 감사품질 사이의 관계,” *회계저널*, 제25권 3호, pp.307-337.
- (Choi, S. U., J. H. Roh, J. E. Lee, and G. S. Bae (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ner Hours and Audit Quality,” *Korean Accounting Journal*, 25(3), pp.307-337.)
- 최승욱, 이재은, 배길수(2015), “감사보수, 감사시간 및 감사품질에 감사파트너 고정효과가 존재하는가?,” *회계학연구*, 제40권 1호, pp.73-116.
- (Choi, S. U., J. E. Lee, and G. S. Bae(2015), “Individual Audit Partner Fixed Effects on Audit Fees, Audit Hours, and Audit Quality,” *Korean Accounting Review*, 40(1), pp.73-116.)
- Cameran, M., D. Campa, and J. R. Francis(2022), “The Relative Importance of Auditor Characteristics versus Client Factors in Explaining Audit Quality,” *Journal of Accounting, Auditing & Finance*, 37(4), pp.751-776.
- Chen, J. Z., M. H. Chen, C. L. Chin, and G. J. Lobo (2020), “Do Firms that Have a Common Signing Auditor Exhibit Higher Earnings Comparability?,” *The Accounting Review*, 95(3), pp.115-143.
- Chen, J. Z., K. K. Nelson, Y. Wang, and L. Yu(2024), “What does the Auditor Say? Auditors’ Disclosures of Critical Audit Matters and Audit Fees,” *Accounting Horizons*, 38(4), pp.51-70.
- Cohen, L., C. Malloy, and Q. Nguyen(2020), “Lazy prices”, *The Journal of Finance*, 75(3), pp.1371-1415
- DeFond, M. and J. Zhang(2014), “A Review of Archival Auditing Research,”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58(2-3), pp.275-326.
- Frost, T., Z. C. He, X. Luo, and D. Stice(2024), “Audit Partner Style and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New Evidence from the US Market,” *Journal of Business Finance & Accounting*, 51, pp.2763-2790.
- Gambetta, N., L. Sierra-García, M. A. García-Benau, and J. Novejarque-Civera(2023), “The Informative Value of Key Audit Matters in the Audit Report: Understanding the Impact of the Audit Firm and KAM Type,” *Australian Accounting Review*, 33(2), pp.114-134.
- Gul, F. A., D. Wu, and Z. Yang(2013), “Do Individual Auditors Affect Audit Quality? Evidence from Archival Data,” *The Accounting Review*, 88(6), pp.1993-2023.
- Gutierrez, E., M. Minutti-Meza, K. W. Tatum, and M. Vulcheva(2018), “Consequences of Adopting an Expanded Auditor’s Report in the United Kingdom,” *Review of Accounting Studies*, 23(4), pp.1543-1587.

- Hanlon, M., K. Yeung, and L. Zuo(2022), "Behavioral Economics of Accounting: A Review of Archival Research on Individual Decision Makers,"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39(2), pp.1150-1214.
- Hardies, K., C. Lennox, and B. Li(2021), "Gender Discrimination? Evidence from the Belgian Public Accounting Profession,"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38(3), pp.1509-1541.
- Jiu, L., B. Liu, and Y. Liu(2020), "How a Shared Auditor Affects Firm-pair Comparability: Implications of both Firm and Individual Audit Styles,"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39(3), pp.133-160.
- Knechel, W. R., A. Vanstraelen, and M. Zerni(2015), "Does the Identity of Engagement Partners Matter? An Analysis of Audit Partner Reporting Decisions,"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32(4), pp.1443-1478.
- Lennox, C. S., J. J. Schmidt, and A. M. Thompson (2023), "Why are Expanded Audit Reports not Informative to Investors? Evidence from the United Kingdom," *Review of Accounting Studies*, 28(2), pp.497-532.
- Lennox, C. S. and X. Wu(2018), "A Review of the Archival Literature on Audit Partners," *Accounting Horizons*, 32(2), pp.1-35.
- Li, L., B. Qi, and J. Zhang(2021), "The Effect of Engagement Auditors on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40(3), pp.73-104.
- Ong, S. Y., R. Moroney, and X. Xiao(2022), "How do Key Audit Matter Characteristics Combine to Impact Financial Statement Understandability?," *Accounting & Finance*, 62(1), pp.805-835.
- Rousseau, L. M. and K. M. Zehms(2024), "It's a matter of style: The role of audit firms and audit partners in key audit matter reporting,"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41(1), pp.529-561.
- Seebeck, A.(2024), "Back to where it Started?—Do Expanded Auditor's Reports become Sticky, Generic and Boilerplate over Time?," *International Journal of Auditing*, 28(3), pp.536-561.
- Sirois, L. P., J. Bédard, and P. Bera(2018), "The Informational Value of Key Audit Matters in the Auditor's Report: Evidence from an Eye-tracking Study," *Accounting Horizons*, 32(2), pp.141-162.
- Taylor, S. D.(2011), "Does Audit Fee Homogeneity Exist? Premiums and Discounts Attributable to Individual Partners,"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30(4), pp.249-272.
- Zeng, Y., J. H. Zhang, J. Zhang, and M. Zhang(2021), "Key Audit Matters Reports in China: Their Descriptions and Implications of Audit Quality," *Accounting Horizons*, 35(2), pp.167-192.

- 저자 윤용석은 현재 한남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및 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하여 경영학 석사 및 박사를 취득하고, 박사 학위 취득 이후에도 동 대학에서 연구교수로 일하였다. 주요연구분야는 공시정보와 회계감사 등이다.
- 저자 김현아는 현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경영학부 회계 전공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삼일회계법인과 한국증권금융에서 근무하였다.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에서 경영학박사(회계)를 취득하였으며, 주요연구분야는 기업지배구조, 회계감사 및 조세회피 등이다.

〈부록〉 동일파트너 피감사기업들의 KAM 사례

1. 엠에프엠코리아 2022년 감사보고서(파트너 유사도 0.33)

핵심감사사항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사항입니다. 해당 사항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형성 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국외매출의 수익인식시기

회사는 주식33에 기재된 바와 같이 국외매출이 전체 매출액의 98%로 재무제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하며, 주식2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고객과의 계약 및 수출조건에 따라 다양한 수익인식시점이 존재하며, 각각의 조건에 따라 재화의 통제의 이전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수익인식시점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이 요구됩니다. 국외매출의 기간귀속 오류가능성을 고려하여 우리는 국외매출과 관련된 수익의 인식시기를 핵심감사사항으로 식별하였습니다.

동 핵심감사사항과 관련하여 우리가 수행한 주요 감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의 수익인식 회계정책 이해 및 평가
- 비정상적 매출의 존재 여부 및 비정상적 조건의 매출거래 유무에 대해 질문
- 국외매출 거래에 대하여 주요 거래유형의 식별 및 계약서를 통한 계약사항에 대한 검토
- 수익인식에 대응되는 매출채권에 대해 표본추출방식을 이용한 외부조회 확인
- 국외매출 수익인식 기간귀속 확인
- 주식사항 공시 검토

2. 코리아씨키트 2022년 감사보고서(파트너 유사도 0.35)

핵심감사사항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사항입니다. 해당 사항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형성 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1) 국외매출의 수익인식시기

회사는 주석 5에 기재된 바와 같이 국외매출이 전체 매출액의 65%로 재무제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하며, 주석 2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고객과의 계약 및 수출 조건에 따라 다양한 수익인식시점이 존재하며, 각각의 조건에 따라 재화의 통제의 이전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수익인식시점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이 요구됩니다. 국외매출의 기간귀속 오류가능성을 고려하여 우리는 국외매출과 관련된 수익의 기간귀속이 적절하지 않을 가능성을 핵심감사사항으로 식별하였습니다.

동 핵심감사사항과 관련하여 우리가 수행한 주요 감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의 수익인식 회계정책 이해 및 평가
- 비정상적 매출의 존재 여부 및 비정상적 조건의 매출거래 유무에 대해 질문
- 국외매출 거래에 대하여 주요 거래유형의 식별 및 계약서를 통한 계약사항에 대한 검토
- 수익인식에 대응되는 매출채권에 대해 표본추출방식을 이용한 외부조회 확인
- 국외매출 수익인식 기간귀속 확인
- 주석사항 공시 검토

3. 위드텍 2022년 감사보고서(파트너 유사도 0.37)

핵심감사사항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사항들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형성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수익인식의 회계처리

회사는 환경산업 분야의 고감도 정밀측정과 오염제어 기술 개발을 통한 제품 개발 및제조, 판매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회사는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고객에 이전되었을때, 고객에게 이전되는 시기로 보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익인식 시기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이 각 보고 기간의 수익과 관련 재고자산, 계약자산 및 계약부채의 기간귀속 등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회사의 수익인식의 적정성을 핵심감사사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회사의 경영진은 유의적인 판단을 수행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수익인식 금액 및 시기를 결정하고 있으며, 관련 수익이 재무제표에서 차지하는 금액적 중요성과 경영진 판단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수익인식 회계처리를 핵심감사사항으로 식별하였습니다.

본 핵심감사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감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수익인식 회계정책의 적정성 검토
- ② 수익인식 회계처리의 기간귀속(cut-off)의 적정성 검토
- ③ 계약부채 인식 대상에 대한 완전성 검토

4. 인터플렉스 2022년 감사보고서(파트너 유사도 0.14)

핵심감사사항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재무제표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형성 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핵심감사사항으로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손실충당금 측정의 적정성을 선정하였습니다.

회사는 연성인쇄회로기판(FPCB)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으며 Display BU 및 I&S BU를 통한 직수출, SET MAKER 및 2차 VENDOR와의 거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국내외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함에 따라 고객의 신용도가 다양합니다. 이러한 고객의 신용상태나 거래관계로 인해 회사는 채권의 손상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다양한 고객의 신용변화 또는 고객관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재무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관련 기업회계기준서는 기대신용손실모형에 따라 매 재무보고시 채권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손실충당금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회사의 영업환경과 대상 계정과목의 중요성 및 측정과정에서의 잠재 오류를 고려하여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에 대한 회사의 손실충당금 측정의 적정성을 핵심감사사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수행한 주요 감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의적으로 신용위험이 상승한 고객의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 설정의 합리성과 인식시점의 적정성 검사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연령분석표에 대한 기초정보와의 대사검증
- 회사가 적용한 채무불이행경험률과 부도시손실률에 대한 독립적인 계산 검증
- 회사가 제시한 손실충당금 재계산 검증 및 변동내역 분석

[참고] 인터플렉스 2021년 감사보고서 (동일 회계법인 다른 파트너 감사실시)

핵심감사 사항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사항들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 형성 시 다루어 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 자산손상

당 반기 중 회사는 매출충손실 및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회사는 손상의 징후가 존재함을 확인하고, 손상의 징후가 존재하는 영업부문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6호에 따른 자산손상 검사를 수행하였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시 회수가가능액은 사용가치를 기초로 결정하며, 사용가치는 자산의 계속적인 사용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현금흐름을 할인하여 결정합니다. 현금창출단위에 대하여 결정된 사용가치는 현금흐름할인모형에서 사용된 할인을 또는 영구성장률과 같은 중요 가정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미래 현금흐름 추정시 회사의 사업계획 등 경영진의 유의적인 추정과 판단이 개입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회사가 수행한 자산손상 검사의 적정성을 확인하는데 있어 감사인의 높은 주의가 요구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동 핵심감사사항과 관련하여 우리가 수행한 주요 감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산손상의 징후 존재여부 확인
- 경영진측 전문가의 적격성 및 독립성 확인
- 손상검사 적용범위 및 현금창출단위 식별의 적정성 확인
- 손상검사 방법론 및 투입변수를 포함한 제가정의 적정성 확인
- 회사의 사업계획 검토를 통한 미래 현금흐름 추정의 실현가능성 확인